※출마예정자 사진은 현역의원, 가나다 順

현 의원·장관 출신·대표특보 본격 세몰이

광주 동남갑

윤영덕

노형욱

문상옥

문정은

유동국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후보 군들의 도전이 거세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윤 의원이 수성에 나섰고, 이에 맞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 유동국 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정치신인'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당내 경선에서 유력 후보였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본선에서는 3선인 장병완 의원을 꺾고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윤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교육·운영·정무·예결위원회 등의 다양한 상임위를 거치며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진월동 송전탑 이전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승촌파크골프장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알리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 몰이에 나서고 있는 노 전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끝으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낙향했다.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미래 산업 준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특보는 최근 2년 사이 이재명 당 대표의 대변인만 4번을 역임하는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인연 탓인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동조한 16일 간 단식에 나섰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동국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는 광주와 전남, 두 지역의 테크노파크 원장을 모두 지내고, 재임 기간 산업부와 중기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거두는 등 경제산업 정책전문가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제6·7대 전남도의원과 한국공공기관 감사협의회장, 한전 KDN 상임감사 등을 지낸 문상옥 동남갑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한다. 정의당은 최연소 시당위원장인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이 출마에 나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재선 의원에 친명 후보·전직 의원 도전

광주 서구갑

송갑석

강승철

강위원

김명진

박형민

박혜자

윤종록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3선 도전에 맞서 앞선 21대 총선에서 경선을 벌였던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 조인철 광주시 경제부시장, 강위원 이재명 당 대표 특보, 박혜자 전 국회의원 등이 민주당 후보로 경선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9월23일부터 시작된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과 올해 말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확정짓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내면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로 꼽히고 있다.

이에 맞서 '이재명 호위무사'로 꼽히는 강위원 특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로 '친명계' 호남 대표주자로 꼽힌다.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김대중 정부)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앞선 2018년 서구갑 재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두 차례 낙마했지만, 매주 한 차례 이상 양동시장과 상무금요시장을 방문하면서 바닥 민심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선거구에 '민생예산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는 등 일찌감치 출마 채비를 마쳤다.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과장,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등을 거쳤다.

박혜자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선대 명예교수인 윤종록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정의당에서는 박형민 서구갑 지역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강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후보만 7명…치열한 당내 경선 예고

광주 동남을

이병훈

김미화

김성환

김해경

노희용

문충식

안도걸

양형일

이정락

홍성남

'호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광주 동남구을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달리 유달리 많은 후보들이 나서 치열한 경선과 본선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재선 도전에 맞서 민주당 내에선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노희용 전 동구청장,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이정락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운영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당내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 김성환 광주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 후보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양형일 전 국회의원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청장은 재임 기간 동구 숙원사업이었던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자 경제 관료 출신인 안도걸 전 차관도 동구에 안도걸 광주경제연구소를 차리고 청년, 자영업자, 창업자 등 각계각층을 만나며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광주은행 최초 여성 임원을 지낸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당원 중심의 민주정치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이정락 운영위원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에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충식 (주)씨에스디 대표이사가, 정의당에서는 홍성남 동남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진보당은 김미화 전 보건의료노조 전 남대병원 지부장이 일찌감치 당내 후보로 확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

현 의원 3명 경쟁에 전직 6선의원 가세

광주 서구을

강은미

김경만

양향자

김해정

양부남

천정배

최회용

하헌식

광주 서구을 선거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들 간 총성없는 전쟁이 치러지면서 민주당 경선 뿐만 아니라 본선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우선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경만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인 강은미 의원 등이 재선 도전에, 6선 의원을 지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7선 도전에 나선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선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최회용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광주시 상임운영위원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김경만 의원과 천정배 이사장, 양부남 위원장, 최회용 위원 등이다. 최근 '한국의희망' 정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은 양 의원은 지역구 현장 활동을 지속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거대 여·야당이 아닌 '제3신당'의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 출신인 김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발판 삼아 고향인 광주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양 전 고검장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영입된 뒤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방어 등에 나서면서 언론에 주목받고 있다. 천 이사장은 광주와 호남을 '정치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대전환 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최 위원은 최근 소리통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섰다. 그는 전 참여자치 21 대표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출마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서구에서 서구의원, 광주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주민과 소통해 온 '풀뿌리 정치인'이다. 현장 민원사무실을 차려 풍암호수 수질개선 문제 해결책 제시, 노인복지관 개보수, 풍암중학교 강당 리모델링 등 지역 민원도 성과를 냈다. 국민의힘에선 하헌식 사단법인 남도미래발전연구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한다. 진보당에서는 김해정 풍암호수원형보전매립반대 수질개선 대책위원장이 출마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